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한 경 지

2023년 2월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指導教授 오 수 미

韓 景 址

이 論文을 看護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12月

韓景址의 看護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認함

審査委員長 현 미 열



委 員 김 진 일



委 員 오 수 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2年 12月



# Factors affecting the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of parent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Kyeong-Ji Han

(Supervised by professor Su-Mi 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Nursing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iyeul Hyun

Thesis director, Mi-Yeul Hyun. Prof. of Nursing

Jun il Kim

Sumi Oh

2022. 12.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개념적 기틀 .....	5
4. 용어의 정의 .....	6
II. 문헌 고찰 .....	9
1. 훈육.....	9
1) 유아기 훈육의 중요성 .....	9
2) 훈육행동 .....	10
3)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1)Belsky의 양육행동 결정모델 .....	11
(2)부모의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3
(3)피양육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	16
(4)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 .....	19
III. 연구방법 .....	21
1. 연구 설계 .....	21

2. 연구 대상 .....	21
3. 연구 도구 .....	22
1) 부모의 원가족경험 척도 .....	22
2) 자기통제력 척도 .....	22
3) 양육스트레스 척도 .....	23
4) 결혼생활 만족도 척도 .....	23
5) 아동학대 인식 척도 .....	23
6) 훈육행동 척도.....	24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	25
5. 자료분석 방법.....	26
IV. 연구결과 .....	28
V. 논 의 .....	43
VI. 결론 및 제언 .....	51
참고문헌 .....	54
Abstract .....	62
부록 .....	64

## 표 목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	2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children .....	3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	33
Table 4. Differences of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5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37
Table 6. Factors affecting discipline behaviors of parent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39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41

## 그림 목차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5
Figure 2. Belsky's 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	12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4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훈육이란 건강한 양육방법 중의 하나로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임홍수와 박송춘, 2016),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위해를 초래하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방임, 착취를 말한다(WHO, 2020). 예전에는 매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을 훈육 중 하나로 여겨왔지만, 최근에는 훈육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과거에는 당연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훈육방법이 현재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12.02).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12.02). 하지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훈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은 2013년 35%에서 2018년 3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체적 처벌을 이용하여 훈육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2.02).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적 자원이자 환경이며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교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훈육해야 한다(문혁준과 최윤희, 2021).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적절한 훈육방법을 잘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되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문혁준과 최윤희, 2021). 또한 국내의 학대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중앙아동보호기관, 2021). 따라서 부모가 적절한 훈육행동을 사용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확대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rickson (1963)은 유아기는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만 1~2세의 초기 아동기와 주도성을 추구하는 만 3~5세의 학령 전 아동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부모의 제한으로 인해 자율성과 주도성의 추구를 위해 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제한되게 될 경우 부정적인 행동들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인 유아기 자녀들에게 부모는 대안적인 행동을 이해시키고 수정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지만, 유아기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안에서도 이타적인 입장에서 추론이 가능하므로 (Wellman, 2001), 일상생활 속의 교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배우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훈육이 중요하다(심태은과 김은심, 2015).

부모의 훈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양육행동 결정모델 (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이 있다(Belsky, 1984). 이 모델에서는 부모의 발달사(Developmental history)가 부모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이러한 성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결혼생활,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상황별 요인은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육의 일부분인 훈육 또한 부모의 원가족경험에서 비롯되어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신현정과 이은영, 2016; 이문희와 이수림, 2015). 이러한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부모의 성격이 있다(Belsky, 1984). Belsky (2014)는 부모의 성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통제력이 있다. 부모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기통제력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연현진, 한애경과 윤혜미, 2011), 자기통제력이 높은 부모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보다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훈육을 하는 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는 강압적인 통제와 부적절한 대처와 같은 부정적인 훈육을 하게 되어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Moilanen & Manuel, 2017). 이에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역시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혼자 두는 것, 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동학대임을 아는 것과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오정옥과 이경원, 2015; 오현미, 2016; 하영옥, 2018).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원가족경험에 영향을 받는데, 어릴 적 부모에게 거부적 양육을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미정과 오두남, 2019), 어린 시절 부적절한 양육경험이 추후 자녀의 훈육에 있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훈육행동을 하게 되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서은미, 2016). 따라서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역시 부모의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상황적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최선녀와 문영경, 2016).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아기 부모의 훈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 및 상황적 요인들과 훈육행동의 관계를 보려는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김미숙, 2019; 정신자, 2020; Nofziger & Newton, 2017), 각 요인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적절한 훈육행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논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는 추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훈육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3.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기존의 Belsky 양육행동 결정모델을 기반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및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및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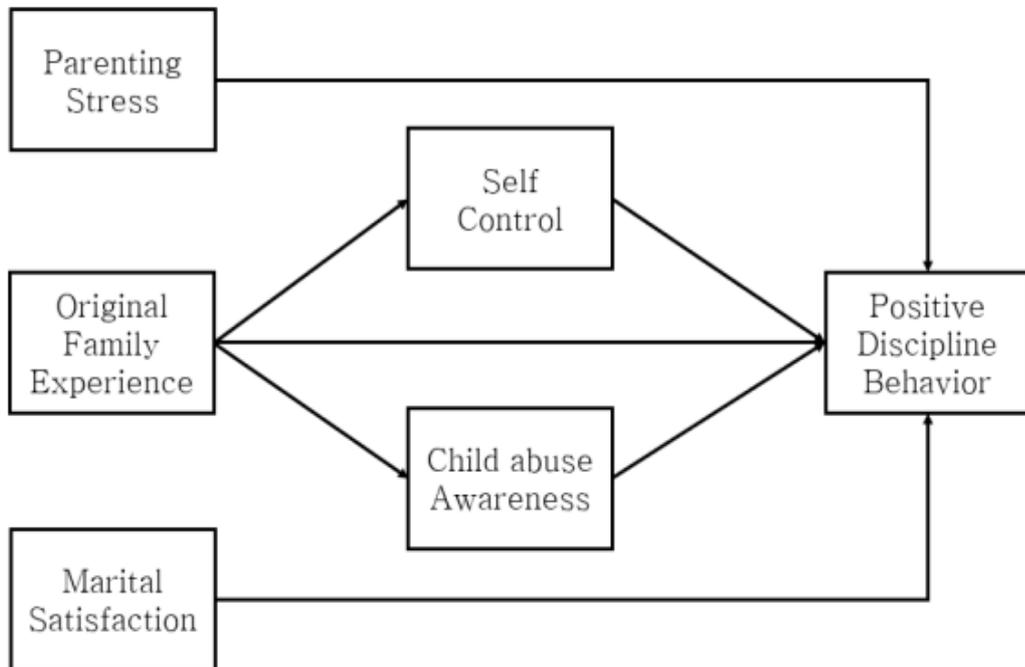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4. 용어의 정의

##### 1) 유아기(Early childhood)

(1) 이론적 및 조작적 정의: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을 말한다(간호학대사전, 2021.11.14; Erikson, 1963).

##### 2) 원가족경험(Original family experience)

(1) 이론적 정의: 부모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원가족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국어사전, 2021.11.14; 상담학사전, 2022.12.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부모 및 형제와의 함께 살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원가족에서의 관계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제석봉(1989)이 개발한 원가족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 3) 자기통제력(Self-control)

(1) 이론적 정의: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22.11.2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자기통제력은 Tangney (2004)가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인 SCS (The Self-Control Scale)를 홍현기(2012)가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척도(The Brief Self-Control Scale: BCSC)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 4)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 (1) 이론적 정의: 양육자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Abidin, 1990).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 (1976)이 개발한 PSI-SF (Parent Stress Index-short form)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경숙(2008)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하는 상황적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 하위척도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결혼생활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 (1) 이론적 정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정현숙(1997)의 도구로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결혼생활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부모로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아동학대 인식(Child-abuse Awareness)

- (1) 이론적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은 한국리서치에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7) 긍정적인 훈육행동(Positive discipline behavior)

(1) 이론적 정의: 훈육행동은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에 목적을 둔 행동을 말하며 긍정적, 부정적 훈육이 존재한다(정신혜, 2019; Chaffin et al., 2004; Hazzard, Christensen & Margolin, 198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Hazzard, Christensen & Margolin(1983)이 개발하고 Chaffin et al.(2004)가 수정한 PPI-P(Parent Perception Inventory-parent)를 번안하고 타당화 한 정신혜(2019)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 중 긍정적인 훈육행동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를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훈육

#### 1) 유아기 훈육의 중요성

Erikson(1963)은 인간을 각 단계의 발달과업별로 8단계로 나누었다. 유아기를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3세의 유아는 자율성을 얻기 위한 단계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한다. 부모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려고 할 때 유아의 자율성을 하고자 했던 행동이 좌절하기 때문에 “싫어”와 같이 거부하거나 떼쓰기 등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 3~6세의 유아는 주도성을 얻기 위한 단계로,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 무한한 흥미와 호기심을 나타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Bigner, 1989).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인 유아기 아동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특성이 있어 부모는 대안적인 행동을 이해시키고 수정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지만, 유아기 아동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추론이 가능하므로 부모는 자기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Wellman, 2001). 유아기는 발달과정 중 환경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가정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환경이다(채경진과 유연옥, 2015). 유아기 자녀들이 출생 후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행동의 모델은 부모이며(이지혜, 2016), 부모의 양육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사회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기것으로서 행동화한다(김경아, 2019). 부모의 가치나 신념은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여겨져 왔으며(McGillicuddy-DeLisi, 1982),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교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훈육해야 한

다(문혁준, 2021).

따라서 훈육이란 사회문화 속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자녀가 획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동을 통제 혹은 조절하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하은정, 2020). 또한, 일상생활 속의 교육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훈육이 필요하다 하였다(심태은과 김은심, 2015).

## 2) 훈육행동

우리나라 전통적 개념의 훈육은 유아의 문제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벌 또는 보상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자녀에게 기대에 따른 행동 및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복종과 순응을 강요하였다(김미정과 윤갑정, 2013). 체벌은 교육을 위하여 전통사회에서는 필요한 훈육의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훈육의 대상이 아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벌을 통해 아동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심태은과 김은심, 2015). 시대에 따라 훈육의 방법도 변하며, 최근에는 자녀의 자기통제를 위해 시행하는 훈육을 강조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책임감, 상호작용, 자립성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즉,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으며,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며, 자기 훈련과 자기통제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훈육을 해야 하며(Hurlock, 1978), 자녀의 표현을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이은영, 2016).

훈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Becker (1964)는 허용의 정도에 따라 제한과 허용,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온정과 적대, 감정적인 반응의 차이에 따라 지나친 정서 개입과 냉담한 분리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학자의 분류로는, 첫 번째 권력 단언(Power assertion)으로, 권력으로 체벌 또는 위협을 통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애정 철회(Love withdrawal)는 대화 거부 및 무시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귀납적 훈육

(Induction)은 설득 또는 유도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며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offman, 1967). Baumrind(1971)은 부모의 훈육을 자녀에 대한 허용과 참여하는 민주적(Authoritative), 규칙을 정하고 감독을 통한 행동적 통제인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자율성의 허용을 통한 허용적(Permissive)으로 구분하였다. Wheelan(1980)는 단호한, 비 단호한, 공격적 훈육으로 구분하였으며, Gottman(1997)은 무시형, 비판형, 방임형, 정서 코치형으로 분류하였다. Smetana(2002)는 지지적, 심리통제적, 행동 통제적 유형으로 훈육을 구분하였고, Clazada and Eyberg (2002)는 훈육행동을 강압적 처벌과 방임 그리고 논리적 설명 3가지로 설명하였다. Hazzard (1983)은 훈육행동을 긍정적인 부모의 훈육과 부정적인 훈육으로 구분하였고 첫 번째, ‘긍정적인 부모 훈육행동’에는 긍정적 강화, 편안함, 대화 시간, 의사결정 참여, 놀이 시간, 긍정적 평가, 독립심 허용, 비언어적 애칭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부모 훈육행동’에는 특권 박탈, 비판, 명령, 신체적 처벌, 고함지르기, 위협, 타임아웃, 잔소리, 무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훈육행동은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 더 나아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며, 긍정적, 부정적인 행동이 존재한다.

### 3)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Belsky의 양육행동 결정모델

Belsky (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와 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양육행동이 결정된다는 양육행동 결정모델(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제시하였다. Belsky (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은 부모의 특성(Parent characteristics), 자녀의 특성(Child characteristics), 상황별 요인(Contextual factors)로 나누었으

며, 이전의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식화하였다[Figure 2]. Belsky (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은 부모의 발달사(Developmental history)를 통해 부모의 성격(Personality)이 형성되고, 결국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자녀의 발달(Child development)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표현하였다. 부모의 발달사는 부모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는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녀의 특성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상황별 요인으로서 결혼생활,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는 양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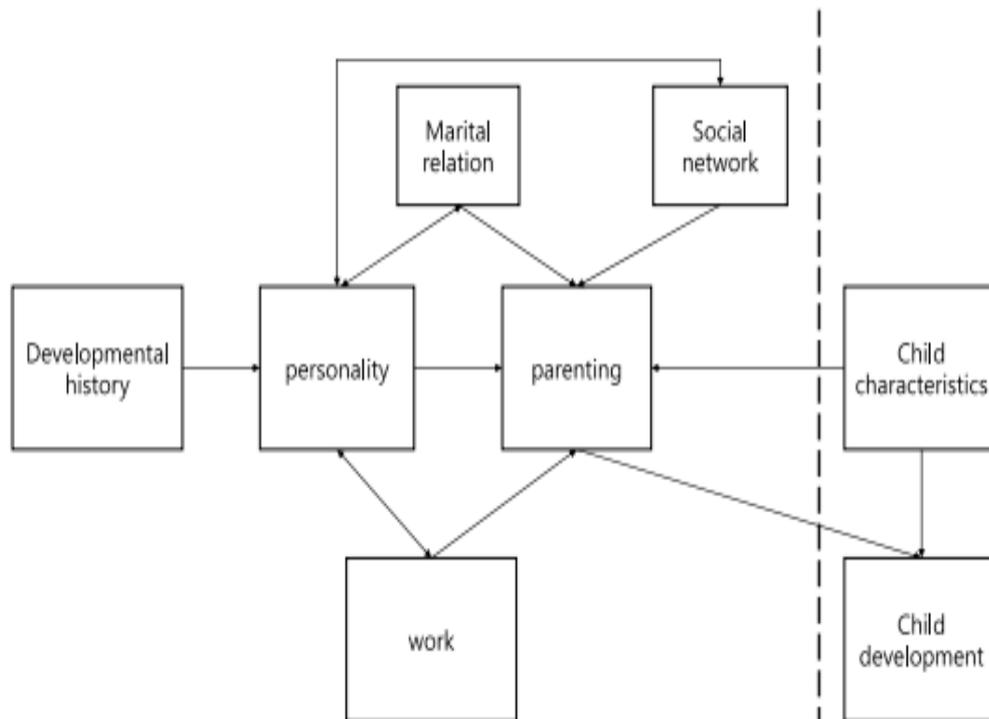


Figure 2. Belsky' s 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

Belsky(1984)는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 중 부모의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와 양육의 관계는 부

모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발달사(Dvelopmental history)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Belsky (2005)는 3세 때부터 미래의 부모-자식 사이의 관계와 양육행동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확인을 통해 부모의 발달사와 자녀의 양육에 관련성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전이를 입증하였다(Capaldi, 2003; Chen, 2001). 또한, 부모의 성격(Personality)은 Belsky (1984)의 후속 연구에서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심리적 자원(Parents' psychological resources), 부모의 심리적 속성(Psychological attributes)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됐으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된 특성으로 볼 수 있었다(Belsky & Israel, 2014; Belsky, 1984).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양육 행동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증(Wilson & Durbin, 2010), 자아존중감(권신영과 서영숙, 2014)과 양육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자기통제력(김태명과 이은주, 2017; 이지연과 백정빈, 2009; Belsky, 1984; Gottfredson & Hirschi, 1990; Moilanen & Manuel, 2017; Palmer, 2009)은 양육 행동에 대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별 요인(Contextual factors)은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 관계(Marital relations), 직업(work),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있다. Belsky (1984)는 결혼 관계는 부모의 역할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잠재력을 가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적대적인 부부관계의 부모는 논리적인 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사용하며 강압적인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Buehler & Gerard, 2002).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결혼 관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참여와 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2) 부모의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기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사회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서 행동화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화를 위해서 일관성이 있는 훈육방식이 필요하다(김경아, 2019). 이처럼 훈육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방식이나 훈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되며, 이는 자녀의 발달에 위협한 요인이다(문혁준, 2021). 아동을 보호해야 할 주 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함에도 ‘훈육’이라는 변명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박연주, 2020)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징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21; 중앙아동보호기관, 2021),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월등하게 높아 아동학대의 주 요인이 올바른 양육 행동과 훈육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부모의 양육은 부모의 원가족경험에서 답습되며(Belsky, 1984), 양육의 일부분인 훈육 또한 부모의 원가족경험에서 비롯되어 세대 간 전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신현정과 이은영, 2016; 이문희와 이수림, 2015). 부모의 원가족경험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양육방식이나 훈육에 대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훈육하는 방법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김지혜, 정익중, 이희연과 김경희, 2013; 안선경, 양지혜와 정익중, 2012).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학대 비율은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재학대의 원인으로 ‘학대의 대물림’을 꼽는데, 이는 학대의 대부분이 훈육에서 시작하는데 과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을 경우 감정 해소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폭력’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기호일보, 2021. 11. 28.). 이는 부모의 원가족경험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자녀를 지도하고 훈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훈육행동의 세대 간 대물림을 막기 위해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내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현지와 전경아, 2011). 부모가 됨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부모는 자기통제력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지연과 백정빈, 2009).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기통제력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확인되었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Belsky, 1984; Moilanen & Manuel, 2017).

Belsky and Israel (2014)는 부모의 성격(Personality)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기통제력과 일맥상통하다. 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은 낮은 통제력은 부모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자기통제력 형성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elsky (1984)는 결혼 관계(Marital relations)는 부모의 양육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는 중요한 지원체계이다(안수영과 이명신, 2020).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지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자녀들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Bodemann & Yurdakul, 2005), 부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모의 경우 논리적인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지 않으며, 강압적인 체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Dielman et al., 1977). 따라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바람직한 훈육을 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강압적인 체벌 등 부적절한 훈육행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스트레스원 중 하나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부모 개인차가 존재하며 훈육행동에 반영이 된다(최선녀와 문영경, 2016). Abidin (1992)는 매우 낮은 양육스트레스로도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명령이나 비난 등 강압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안지영, 오미경과 김지신, 2011), 이는 잠재적으로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이지은, 2017).

요약하면, Belsky (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 및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결혼생활 만족도, 양육스트레스는 훈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 (3)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 ①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22.11.28.). Kopp (1982)는 자기통제력을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Kendall & Wilcox, 1980). Tangney (2004)는 자기통제력을 생각(thought), 정서(Emotions), 충동(Impulses), 행위(Performance)의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자신과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하였다. Kendal (1980)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평가의 인지적 요인과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능력의 행위적 요인의 결합으로 보았다. Finkenauer (2005)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을 억제하고 개인의 생각, 정서, 행동을 변경하거나 조절하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Gottfredson과 Hirschi (1990)은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지키는 능력이며,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의 어린 시절에 자기통제력을 적절하게 발달시켜야 하며, 일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Gottfredson (1993)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충동성(Impulsivity), 단순 과제(Simple tasks), 모험 추구(Risk seeking), 신체활동 선호(Physical activity), 자기중심성(Self-centered), 분노(Temper)로 나누었다. 첫 번째 충동성(Impulsivity)는 직면한 환경의 자극에서 눈에 띄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두 번째 단순 과제(Simple tasks)는 복잡하지 않고 쉽고 편한 욕구의 충족을 말한다. 세 번째 모험 추구(Risk seeking)는 위험하고 스릴있는 모험을 즐기려는 경향을 말하며, 네 번째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자기중심성(Self-centered)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섯 번째 분노(Temper)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말보다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복잡한 과제에도 도전하기도 하며, 위험한 상황에서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인지 정서적인 활동을 하며, 이타적이고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언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내와 관용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유영숙과 하창순, 2016).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연현진, 한애경과 윤혜미, 2011),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좋아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② 자기통제력과 원가족경험, 훈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경험은 자기통제력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연현진, 한애경과 윤혜미, 2011).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중 훈육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녀에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죄책감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공격성을 억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하영희와 김경연, 2003).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수감자들은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보다 부모의 감독과 훈계를 적게 받았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Hébert et al., 1999). 부모는 가정에서 애착(Attachment), 감독(Monitoring), 인지(Recognition), 처벌(Punishment) 등을 통해 자녀의 어린 시절의 자기통제력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로 자녀에게 애착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을 지도감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인지하여 일관성 있게 처벌을 해야 한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자기통제력이 높은 부모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보다 자녀의 자율성에 대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Prinz et al., 2009),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는 자율성을 저해하고, 과잉반응적인 훈육 또는 강압적인 통제와 연결이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어 자녀에게

도 부정적으로 대하게 된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 수록 자녀의 자기 통제는 낮아지고(이경님, 2001), 쉽게 화내거나 충동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가진 부모는 거부적 양육 태도를 보이거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양육행동을 보인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반면에 부모의 애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충동성을 통제하여 환경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한다(Olson et al., 1990). Baldwin and Fergusson (2001)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낮은 수준의 과잉 반응적 훈육 또는 낮은 수준의 강압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자기통제력은 효율적인 자녀의 양육인 훈육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Gurland and Grolnick (2003)은 부모 스스로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 자녀를 강압적으로 더 압박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Grolnick (2003)은 Belsky (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정리하였으며, 첫 번째 부부간의 갈등, 직업에서의 스트레스,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해 다가오는 압박, 두 번째 부모의 원가족경험으로 인한 압박, 세 번째는 자녀의 학업 성적, 행동문제와 같은 압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자녀의 자율성과 통제의 지지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자녀양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박현진, 이주영, 문경주와 권정혜, 2010)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 행동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한지현과 이진숙, 2015)가 있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결과로 보아 부모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며, 다양한 양육 결정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은 확실하나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자기통제 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주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민수홍, 2006; 이성대, 염동문과 김서정, 2013)가 대부분이며, 자녀 양육방식과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기광도(2005)의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과 비행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이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희길(2008)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의 세대 간 전이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낮으면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 행동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광도(2011)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력의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부모의 심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원가족경험에 의해 발달하기 시작하며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며,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의 훈육행동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4)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

아동학대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교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학대의 정의에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corporal punishment)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사회적으로 체벌을 아동 훈육의 한 가지 방식으로 용인해 왔다(류정희, 2017). 하지만 최근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11.13).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양육자로부터 주로 발생하고(보건복지부, 2021; 중앙아동보호기관, 2021), 양육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아동학대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우희, 2006). 실제 국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훈육을 위해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2.01) 국내 부모들의 아동학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eud의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및 생각,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로 부모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경험, 무시와 무관심의 경험, 모호한 거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시절 원가족경험이 아동학대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우희, 2006).

아동학대 인식이 낮을수록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할수록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림과 윤혜미, 2002),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강조하였다(백경숙, 2011). 통제적인 훈육은 신체적 학대와, 적대적인 훈육은 정서적 학대와, 그리고 안일한 훈육은 방임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이경님, 2004), 자녀의 발달이나 양육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를 훈육할 때도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서은미, 2016). 가정환경 중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백경숙, 2011), 피학대경험과 자녀 학대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어(김영미, 2015), 학대 행위에 대한 세대 간에 전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린 시절의 원가족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만 1~6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이며,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유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1~6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자녀가 급성질환(감기, 설사, 발열 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설문지 응답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15(보통), 독립변수 5개(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로 산정된 최소 표본 수가 138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200명으로(김원순, 2021),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서류봉투에 담긴 설문지를 배

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으며, 총 200부 전부 회수되어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원가족경험 척도

부모의 원가족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원가족경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어린 시절 부모 및 형제와의 함께 살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원가족에서의 관계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정도가 어떠한 지를 측정할 수 있다(송정애, 2018; 제석봉, 1989).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석봉(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이었으며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송정애(2017)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가족투사 .88, 정서적 단절 .93, 가족퇴행 .89 으로 확인되었다.

#### 2)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2004)가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인 SCS(The Self-Control Scale)를 홍현기(2012)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The Brief Self-Control Scale: BCSC)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제력, 집중력의 2가지 하위요인에 대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현기(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8로 나타났으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자제력 .78, 집중력

.61 으로 확인되었다.

### 3) 양육스트레스 척도

Abidin (1976)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Parents’ stress index, PSI)’를 이경숙(200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각 12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하는 상황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고통 12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경숙(2008)의 도구에서 신뢰도는 .73로 나타났으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 로 확인되었다.

### 4) 결혼생활 만족도 척도

결혼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Nichols, Schectman & Grigsby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KMSS)를 정현숙(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결혼생활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부모로서의 배우자 만족도로 총 4문항으로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로 나타났으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으로 확인되었다.

### 5) 아동학대 인식 척도

아동학대 인식을 측정을 위해 한국리서치기관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

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총 4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15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타당도가 입증되어 한국리서치기관에서 표준화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 .71, 정서적 학대 .81, 성적 학대 .55, 방임 .69으로 확인되었다.

#### 6) 훈육행동 척도

훈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제 훈육 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Hazzard, Christensen, & Margolin (1983)가 Parent Perception Inventory (PPI) 개발하고 Chaffin (2004)이 부모 자기 보고용(PPI-P)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신혜(201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훈육행동 10문항, 부정적인 훈육행동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각 훈육행동 유형별로 합산되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훈육행동 10문항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정신혜(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7로 나타났으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확인되었다.

#### 4. 자료수집 절차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참여할 것을 동의하고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며, 스스로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유아기 아동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200부를 2022년 1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수집하였다. 최종 2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 윤리 위원회(IRB File No.: 2022-01-024)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자 소개 및 연구목적 및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및 중도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현장에서 직접 서류봉투에 밀봉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외 접근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동의서와 설문지가 분리된 채 보관되며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연구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program, PROCESS macro for SPSS (Ver 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인식,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t-test 와 ANOVA 를 이용하였고, scheffe test 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 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을 실시하였다.
- 4) 유아기 자녀의 부모들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기틀에서 확인된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PROCESS macro 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한 번에 일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선호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SPSS PROCESS Macro 분석 방법 중 Model 4 를 활용하였다(Hayes & Scharkow, 2013).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자는 169명(84.5%), 남자는 31명(15.5%)으로 대다수가 여자였다. 연령으로는 35~39세가 73명(36.5%), 40~44세가 59명(29.5%), 30~34세가 47명(23.5%), 45~49세가 13명(6.5%), 29세이하가 8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105명(52.5%), 1명이 61명(30.5%), 3명이상이 3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168명(84.0%), 대학원 수료 이상이 24명(12%),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8명(4.0%)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는 ‘있음’이 182명(91.0%) ‘없음’이 18명(9.0%)로 나타났다. 가정의 평균수입으로는 600만원이상 800만원 미만이 64명(32.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59명(29.5%), 400만원 미만이 49명(24.5%), 800만원 이상이 28명(14.0%)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1(15.5)
	Female	169(84.5)
Age (years)	≤29	8(4.0)
	30~34	47(23.5)
	35~39	73(36.5)
	40~44	59(29.5)
	45~49	13(6.5)
Number of Children	1	61(30.5)
	2	105(52.5)
	≥3	34(17.0)
Living with spouse	Yes	197(98.5)
	No	3(1.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4.0)
	≤Bachelor	168(84.0)
	≥Master	24(12)
Job Status	Yes	182(91.0)
	No	18(9.0)
Average monthly Income (million won)	$\chi < 4.0$	49(24.5)
	$4.0 \leq \chi < 6.0$	59(29.5)
	$6.0 \leq \chi < 8.0$	64(32.0)
	$8.0 \leq \chi$	28(14.0)

## 2. 조사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 105 명(52.5%), 여자 95 명(47.5%)로 비슷하였다. 연령으로는 60 개월이상 71 개월 이하가 56 명(28.0%), 12 개월 이상 23 개월 이하가 44 명(22.0%), 24 개월 이상 35 개월 이하가 42 명(21.0%), 48 개월 이상 59 개월 이하가 36 명(18.0%), 36 개월 이상 47 개월 이하가 22 명(11.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유무는 ‘없음’ 179 명(89.5), ‘있음’ 21 명(10.5%)로 거의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질병은 선천성 갑상선질환 6 명(3%), 선천성 심장질환 3 명(1.5%), 아토피 질환 3 명(1.5%), 급성 백혈병 2 명(1.5%), 알러지성 비염이 1 명 (0.5%), 수신증이 1 명(0.5%), 발달지연이 1 명(0.5%), 혈관종이 1 명(0.5%), 기타 선천성 질환 3 명(1.5%)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hildren**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05(52.5)
	Female	95(47.5)
Age (months)	12~23	44(22.0)
	24~35	42(21.0)
	36~47	22(11.0)
	48~59	36(18.0)
	60~71	56(28.0)
Disease being treatment	Yes	21(10.5)
	No	179(89.5)
Disease being treatment (N=21)	Congenital thyroid disease	6(3.0)
	Congenital heart disease	3(1.5)
	Atopic dermatitis	3(1.5)
	Acute leukemia	2(1.0)
	Allergic rhinitis	1(0.5)
	Hydronephrosis	1(0.5)
	Developmental delay	1(0.5)
	Hemangioma	1(0.5)
Other congenital disease	3(1.5)	

### 3.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정도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대한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부모의 원가족경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하위요인 1 가족투사는  $4.12 \pm 0.78$  점, 하위요인 2 정서적 단절은  $4.12 \pm 0.76$  점, 하위요인 3 가족퇴행은  $3.70 \pm 0.85$  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하위요인 1 자제력은  $3.57 \pm 0.57$  점, 하위요인 2 집중력은  $3.51 \pm 0.61$  점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2.55 \pm 0.63$  점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4.06 \pm 0.71$  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요인 1 신체적 학대는  $3.66 \pm 0.35$  점, 하위요인 2 정서적 학대는  $3.33 \pm 0.55$  점, 하위요인 3 성적 학대는  $3.93 \pm 0.22$  점, 하위요인 4 방임은  $3.62 \pm 0.40$  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4.03 \pm 0.43$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00)

Variables(range)	M±SD	Skewness	Kurtosis
<b>Original family experience</b>			
Family projection (1.00~5.00)	4.12±0.78	-1.19	1.78
Emotional disconnection (1.00~5.00)	4.12±0.76	-1.19	1.42
Family regression (1.00~5.00)	3.70±0.85	-0.50	0.13
<b>Self control</b>			
Self discipline (1.00~5.00)	3.57±0.57	-0.23	0.03
Concentration (1.00~5.00)	3.51±0.61	0.07	-0.11
<b>Parenting stress</b>			
Parenting stress (1.00~5.00)	2.55±0.63	0.24	-0.01
<b>Marital satisfaction</b>			
Marital satisfaction (1.00~5.00)	4.06±0.71	-0.73	1.34
<b>Child abuse awareness</b>			
Physical abuse (1.00~4.00)	3.66±0.35	-1.28	1.55
Emotional abuse (1.00~4.00)	3.33±0.55	-0.43	-0.76
Sexual abuse (1.00~4.00)	3.93±0.22	-3.73	14.93
Neglect (1.00~4.00)	3.62±0.40	-1.33	1.60
<b>Positive discipline behavior</b>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1.00~5.00)	4.03±0.43	0.14	-0.26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부모의 원가족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 $F=4.02, p=.019$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교 졸업의 경우( $4.07\pm 0.63$ 점)가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자기통제력 및 아동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 $t=3.66, p < .001$ ), 조사대상자 자녀의 연령( $F=4.37, p=.002$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4.48\pm 0.58$ 점)가 여자인 경우( $3.99\pm 0.70$ 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즉 12~23개월( $4.33\pm 0.66$ 점)의 자녀를 둔 부모가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 $t=-1.91, p=.029$ )이 있었으며, 부모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3.62\pm 0.30$ 점)가 남자인 경우( $3.50\pm 0.36$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자녀의 수( $F=5.16, p=.004$ )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of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y	Original family Experience		Self-Control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Child-abuse Awareness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Gender	Male	3.97±0.53	-0.48 (.314)	3.60±0.61	0.56 (.289)	2.53±0.65	-0.13 (.047)	4.48±0.58	3.66 (<.001)	3.50±0.36	-1.91 (.029)	3.98±0.41	-0.76 (.449)
	Female	4.03±0.70		3.55±0.51		2.55±0.62		3.99±0.70		3.62±0.30		4.07±0.50	
Age of Participants (years)	<30	3.97±0.46	0.35 (.843)	3.52±0.87	0.27 (.894)	2.44±0.46	0.86 (.487)	4.06±0.68	0.61 (.657)	3.63±0.24	0.33 (.855)	4.10±0.36	0.76 (.577)
	30~34	4.09±0.74		3.51±0.49		2.45±0.46		4.19±0.77		3.63±0.28		4.10±0.45	
	35~39	4.01±0.64		3.56±0.53		2.58±0.63		4.04±0.70		3.61±0.31		4.03±0.39	
	40~44	3.96±0.75		3.56±0.52		2.64±0.66		4.05±0.61		3.57±0.34		4.03±0.39	
	≥45	4.13±0.42		3.68±0.46		2.41±0.60		3.88±0.99		3.55±0.30		4.02±0.47	
Living with spouse	Yes	4.02±0.67	0.48 (.631)	3.56±0.53	0.14 (.892)	2.54±0.62	-1.26 (.209)	4.08±0.69	1.82 (.070)	3.60±0.31	0.11 (.911)	4.04±0.42	1.65 (.585)
	No	3.83±1.11		3.52±0.50		3.00±0.83		3.33±1.53		3.58±0.17		4.07±0.49	
Job status	Yes	4.03±0.65	0.41 (.690)	3.55±0.52	-0.43 (.671)	2.55±0.63	-0.21 (.832)	4.05±0.72	-1.05 (.295)	3.59±0.31	-0.57 (.572)	4.04±0.43	-0.30 (.530)
	No	3.93±0.97		3.61±0.56		2.58±0.59		4.24±0.54		3.64±0.33		4.07±0.4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sup>a</sup>	3.47±1.29	4.02 (.019) b>a	3.56±0.53	0.02 (.984)	2.27±0.84	0.83 (.440)	4.28±0.73	0.47 (.626)	3.77±0.20	1.26 (.287)	4.16±0.60	0.45 (.641)
	≤Bachelor <sup>b</sup>	4.07±0.63		3.56±0.51		2.56±0.61		4.07±0.72		3.59±0.30		4.04±0.42	
	≥Master <sup>c</sup>	3.85±0.67		3.54±0.60		2.55±0.67		4.00±0.64		3.60±0.37		4.00±0.46	

Characteristics	category	Original family Experience		Self-Control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Child-abuse Awareness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M±SD	<i>t</i> or <i>F</i> ( <i>p</i> )
Children with Illness	Yes	4.08±0.55	0.45 (.650)	3.58±0.43	0.21 (.831)	2.52±0.54	-0.27 (.790)	4.27±0.46	1.43 (.153)	3.62±0.32	0.28 (.779)	3.98±0.44	-0.65 (.659)
	No	4.01±0.69		3.55±0.54		2.55±0.64		4.04±0.73		3.60±0.31		4.04±0.43	
Number of children	1 <sup>a</sup>	4.16±0.66	1.99 (.139)	3.49±0.55	0.63 (.534)	2.48±0.61	0.91 (.404)	4.22±0.66	1.96 (.144)	3.61±0.29	2.45 (.089)	4.05±0.41	5.16 (.007)
	2 <sup>b</sup>	3.95±0.72		3.59±0.53		2.56±0.64		4.00±0.76		3.62±0.32		4.09±0.43	
	≥3 <sup>c</sup>	3.98±0.54		3.57±0.46		2.65±0.61		4.02±0.61		3.49±0.29		3.83±0.43	
Age of Participants children (months)	12~23 <sup>a</sup>	4.16±0.67	2.17 (.074)	3.67±0.55	1.19 (.315)	2.41±0.63	1.74 (.142)	4.33±0.66	4.37 (.002)	3.70±0.22	2.14 (.078)	4.02±0.43	0.70 (.535)
	24~35 <sup>b</sup>	3.85±0.82		3.51±0.58		2.72±0.53		4.20±0.69		3.57±0.31		4.07±0.47	
	36~47 <sup>c</sup>	4.24±0.54		3.43±0.53		2.62±0.67		3.78±0.75		3.52±0.35		3.94±0.42	
	48~59 <sup>d</sup>	4.08±0.58		3.48±0.54		2.44±0.70		3.79±0.88		3.54±0.33		4.12±0.44	
	60~71 <sup>e</sup>	3.91±0.65		3.60±0.43		2.57±0.61		4.06±0.52		3.60±0.32		4.02±0.39	
Average monthly income (million won)	x<4 <sup>a</sup>	3.90±0.81	0.73 (.537)	3.51±0.48	0.27 (.849)	2.60±0.57	0.19 (.905)	4.05±0.74	0.74 (.529)	3.63±0.30	1.18 (.318)	3.96±0.39	1.06 (.382)
	4≤x<6 <sup>b</sup>	4.02±0.71		3.54±0.57		2.54±0.60		4.13±0.70		3.60±0.28		4.05±0.41	
	6≤x<8 <sup>c</sup>	4.09±0.61		3.59±0.49		2.52±0.68		3.98±0.76		3.54±0.32		4.02±0.41	
	x≥8 <sup>d</sup>	4.06±0.47		3.59±0.60		2.55±0.68		4.19±0.55		3.66±0.35		4.21±0.46	

\*\*\* p<.001, \*\* p<.01, \* p<.05

## 5.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양육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보였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보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0)

Variables	1	2	3	4	5	6
1. Childhood experience	1					
2. Self control	.22**	1				
3. Parenting stress	-.41***	-.32***	1			
4. Marital satisfaction	.20**	.21***	-.40***	1		
5. Child abuse awareness	.18*	.17**	-.19**	.15*	1	
6.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25***	.30***	-.46***	.30***	.26***	1

\*\*\* p<.001, \*\* p<.01, \* p<.05

## 6.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훈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6]. 1단계에서는 자녀의 수를 투입하여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변수에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 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및 아동학대 인식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1단계( $F=5.16$ ,  $p=.007$ )와 2단계( $F=12.11$ ,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로 나타났고( $R^2=.22$ ,  $adj R^2=.04$ ), 2단계에서는 53%로 나타났다( $R^2=.53$ ,  $adj R^2=.25$ ). 한편 Durbin-Waston 통계량은 1.83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모두 3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b=.23$ ,  $p=.013$ )와 2명인 경우( $b=.27$ ,  $p=.002$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수가 3명이상의 경우보다 3명 미만일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 모형에서는 주요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력( $b=.13$ ,  $p=.018$ ), 양육스트레스( $b=-.16$ ,  $p=.002$ ), 결혼생활 만족도( $b=.09$ ,  $p=.037$ )의 변수가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Affecting Positive discipline behaviors of Parent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Independent variables	Model_1			Model_2		
	$\beta$	b	t (p)	$\beta$	b	t (p)
(constant)	3.83	-	52.86 (<.001)	2.66	-	5.70 (<.001)
Number of children ( $\geq 3$ =ref.)						
1	.23	.24	2.50 (.013)	.16	.17	1.99 (.048)
2	.27	.31	3.19 (.002)	.23	.27	3.07 (.002)
Original Family Experience						
Self control				.13	.16	2.38 (.018)
Parenting stress				-.16	-.24	-3.19 (.002)
Marital satisfaction						
Child-abuse awareness				.18	.13	1.95 (.052)
F (p)		5.16 (.007)			12.11 (<.001)	
R <sup>2</sup> (adj R <sup>2</sup> )		.22 (.04)			.53 (.25)	

\*\*\* p<.001, \*\* p<.01, \* p<.05

## 7.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헤이스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한 번에 일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분석 방법 중 Model 4를 활용하였다[Table 7].

우선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자기통제력( $F=9.93$ ,  $p<.001$ ) 및 아동학대 인식( $F=6.28$ ,  $p<.001$ )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자기통제력 및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2.46$ ,  $p<.001$ ). 회귀모형의 설명력으로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자기통제력의 회귀모형은 22%,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아동학대 인식의 회귀모형은 18%, 자기통제력 및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회귀모형은 4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원가족경험)가 매개변수(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기통제력( $b=.17$ ,  $p=.002$ )과 아동학대 인식( $b=.08$ ,  $p=.013$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원가족경험)와 매개변수(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가 종속변수(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원가족경험( $b=.10$ ,  $p=.019$ )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통제력( $b=.19$ ,  $p<.001$ )과 아동학대 인식( $b=.27$ ,  $p=.005$ )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결과,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 모두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훈육행

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훈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Figure 3].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Variables	$\beta$	SE	$t$ (p)	$R_{(adj)R^2}$	F
OFE → SC	.17	.05	3.15 (.002)	.22 (.05)	9.93***
OFE → CA	.08	.03	2.51 (.013)	.18 (.03)	6.28***
OFE → PDB	.10	.05	2.38 (.019)		
SC → PDB	.19	.06	3.46(<.001)	.40 (.16)	12.46***
CA → PDB	.27	.10	2.85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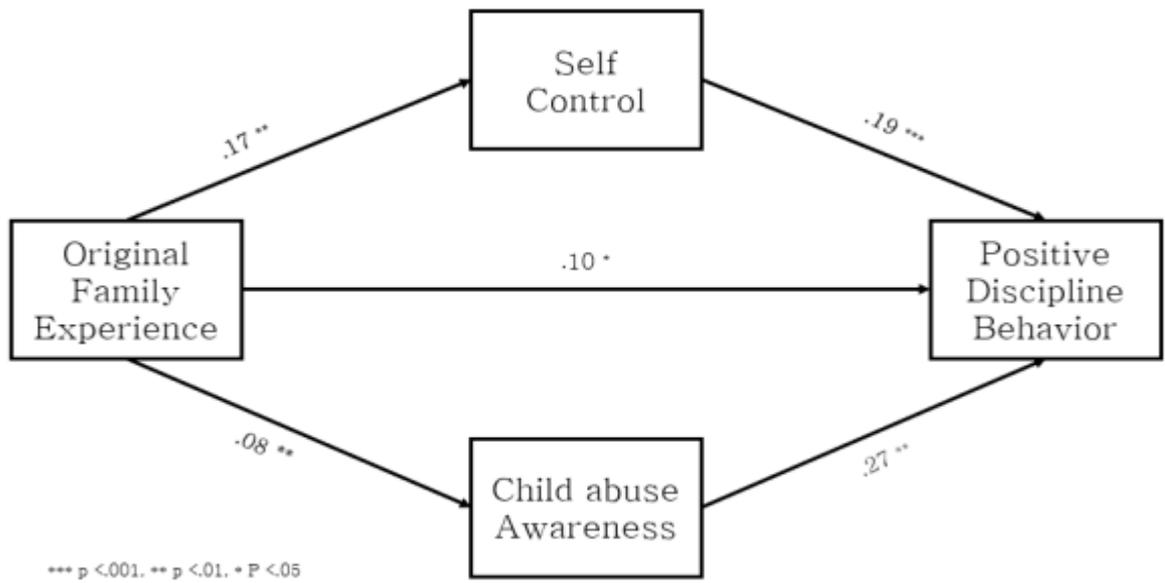
  

Effect	$\beta$	SE	LLCI	ULCI
OFE → SC → PDB	.05	.02	.01	.10
OFE → CA → PDB	.03	.02	.01	.07

\*\*\*  $p < .001$ , \*\*  $p < .01$ , \*  $p < .05$

OFE: original family experience, SC : self control CA: Child abuse Awareness, PDB: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추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기 자녀에게 훈육이란 초기에는 부모에 의해 외적 통제가 주어지지 만 차츰 유아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훈육의 목표가 된다(최윤희와 문혁준, 2020; kostelnik, whiren, soderma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 점수는 평균 4.0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 도구를 사용한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장다혜, 2022)에서는 평균 4.06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아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훈육행동 관련 척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하게 잡혀있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정신혜, 2019; 최윤희와 문혁준, 2020). 자녀양육에 있어 민족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국의 부모들의 훈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표준화 계수가 가장 높았던 양육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평균 2.55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일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박귀빈, 202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더 낮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수업과 보육 시설에 등원이 어려워지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난 자녀 돌봄 시간의 부담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훈육행동이 증가하였다(이수정, 서현아, 2022; 김선숙, 김세원, 박호준, 김성희와 문영은 2021). 따라서, 추후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정도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 중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수( $F=5.16, p=.007$ )가 있었다.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자녀인 경우 다자녀의 경우보다 부모가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 선행연구(배미경과 김용미, 2016; 정진희, 권오영과 김석준, 2018; 최옥채, 201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많아지면서 질서유지와 안정을 위해 통제의 필요성을 느껴 통제적인 훈육행동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김언경, 2011; 장영애와 김용미, 2010),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대한 교육과 지지를 통해 이들의 훈육행동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아버지에게서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변화하는 아버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훈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는 상황적 요인으로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박귀빈, 2022; 노보람, 2016, 김미숙, 김바다, 201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양육방법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장형규, 이은정과 김낙홍, 2020).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행동이 필요하다(문혁준, 2022).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유아기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지영, 이정미와 이상희, 2020), 아버지에게 유

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행동과 훈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피양육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과 훈육유형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자기통제력( $b=.13, p=.018$ ), 양육스트레스( $b=-.16, p=.002$ ), 결혼생활 만족도( $b=.09, p=.037$ ) 변수만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변수마다 상관관계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변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을 개념적 틀로,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성격적 요소 중 하나인 자기통제력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이는 자녀의 학업, 정서, 행동,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김태명, 이은주, 2017), 부모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부정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적, 부정적인 훈육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박봉주, 2018; 이봉주, 민원홍과 김정은, 2014)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지체계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결혼생활 만족도 역시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훈육행동을 보였으며(Greenlee et al., 2022),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이 증가하였다(이은정, 김영희와 반평자, 2022; 김미정, 2015; 이형실, 2017). 이는 부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훈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부모 역할 교육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부관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가족단위의 접근을 통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이 제공될 필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과잉반응적인 훈육 또는 강압적인 통제로 연결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김태명 & 이은주, 2017; Prinzie et al., 2009). 또한, 부모와 자녀의 애착형성이 잘 형성되지 않고, 낮은 관심과 일관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부모와의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낮아진다(김반디, 2022; 이희길, 2008).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소현과 김아영, 2012)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하는 주요 변수인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유아기 부모 중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를 선별하고,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의 예에서처럼(Sander, 2014) 부모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부모 대상 교육에서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공격적, 적대적이고 무시와 무관심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김우희, 2006), 이는 부정적인 훈육행동과 연결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서은미, 2016) 부모의 원가족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가혹한 행동을 견뎌야 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였다(최윤희, 2020). 부모의 어린시절 경험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학대 분위기 조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신의 훈육행동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을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수정, 서현아, 2022). 즉,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유아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이수정, 서현아, 2022). 원가족에서 받았던 부정적인 훈육행동이 세대 간 전이가 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는데(신현

정, 이은영, 2016; 이문희, 이수림, 2015), 부모의 성격적 요소인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을 향상시킨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부모는 어린 시절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겪은 경우에도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높다면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어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중재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미리 자녀가 변화할 사항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적응을 도와주어야 하며, 부모의 현재 자기통제력 및 아동학대 인식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으로 훈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편의추출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각 병원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접근성의 문제로 일개 병원만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반화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기관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가 급성질환(감기, 설사, 발열 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설문지 응답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제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으로 내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질병의 유무집단을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들의 자가 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사용하는 훈육유형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문항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부모들의 훈육유형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제한점을 보완한 측정도구를 선택하여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를 상황별 요인으로 설정하고 확인하였다. 추후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는지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요인 성적학대 척도 제외하고, .60~.95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한국리서치기관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던 도구를 본 도구에서 사용하였는데 추후 신뢰도가 높은 척도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이론적 측면으로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모델(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토대로, 이론의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된 경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훈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간호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간호 연구적 측면으로는 부모의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각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통합적으로 고찰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 및 상황적 요인들과 훈육행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아동학대 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높은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훈육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 연구적 의의를 가진다.

셋째, 간호 실무적 측면으로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인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수정 및 대안적인 행동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는 훈육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부정적인 훈육행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을 높여주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데 간호 실무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넷째, 간호 정책적 측면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훈육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를 훈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부모의 비율은 높으며 실제 훈육행동으로 사용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2.01), 아동학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훈육방법을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되어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중앙아동보호기관, 2021). 따라서, 부모의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 및 훈육방법에 대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또

한, 국내 가정 내 아동학대 비율을 감소시키며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데에 간호 정책적 의의가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추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훈육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제주도 내 일개 대학병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유아기 자녀의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3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자가 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부모의 원가족경험 척도는 어린 시절 부모 및 형제와의 함께 살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원가족 경험에 대한 제석봉(1989)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통제력 척도는 Tagney(2004)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인 SCS(The Self-Control Scale)를 홍현기 외(2012)가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척도(The Brief Self-Control Scale: BCSC)로 측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76)이 개발한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경숙 외(2008)의 도구에서 부모의 상황에 따라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의 고통 하위요인만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혼생활 만족도 척도는 정현숙(1997)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인식 척도는 한국리서치기관에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던 도구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program, PROCESS macro for SPSS(ver.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기술 통계분석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 중 자녀의 수( $F=5.16, p=.007$ )가 긍정적인 훈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은 원가족경험( $r=.25$ ,  $p<.001$ ), 자기통제력( $r=.30$ ,  $p<.001$ ), 결혼생활 만족도( $r=.30$ ,  $p<.001$ ), 아동학대 인식( $r=.26$ ,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스트레스( $r=-.460$ ,  $p<.001$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 모형은 1단계( $F=5.16$ ,  $p=.007$ )와 2단계( $F=12.11$ ,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로 나타났고( $R^2=.22$ ,  $adj R^2=.04$ ), 2단계에서는 53%로 나타났다( $R^2=.53$ ,  $adj R^2=.25$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b=.23$ ,  $p=.013$ )와 2명인 경우( $b=.27$ ,  $p=.002$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모형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력( $b=.13$ ,  $p=.018$ ), 양육스트레스( $b=-.16$ ,  $p=.002$ ), 결혼생활 만족도( $b=.09$ ,  $p=.037$ )의 변수가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 자기통제력, 결혼생활 만족도 순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자기통제력의 회귀 모형( $F=9.93$ ,  $p<.001$ )과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아동학대 인식의 회귀 모형( $F=6.28$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 및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인 훈육행동의 회귀 모형( $F=12.46$ ,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해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이 있었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긍정적인 훈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위한 중재 개발에 있어서는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을 위한 중재 개발 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생활 만족도의 변수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유형을 제공 시 부모의 성격뿐만 아니라 상황별 요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은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함께 참여하고 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낮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들의 자가 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사용하는 훈육행동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문항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부모들의 훈육행동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제한점을 보완한 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기통제력, 양육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미비한 실정이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신영, 서영숙. (2014).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관계에서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01-115.
- 기광도. (2011). 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0(2), 3-24.
- 김경아. (2019). 어머니의 양육가치와 훈육방식이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김경희. (2000).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
- 김미숙, 신소희. (2019).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자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1), 87-99.
- 김미정, 윤갑정. (2013). 유아기 인성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훈육에 대한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81-203.
- 김선혜. (2006). 훈육'의 교육적 의미의 재해석. 열린교육연구, 14(2), 123-138.
- 김연경. (2011). 어머니가 인식한 형제 대우와 형제 상호작용, 형제 및 형제또래의 낮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특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197-219.
- 김영미, 강지연. (2015). 보육교사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지, 09, 133-161.
-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우희. (2006). 미취학 아동부모의 피양육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김은영. (2005).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훈육 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정림, 윤희미. (2002).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생활과학연구논총, 6, 77-93.
- 김지숙. (2019). 행복한 아버지되기 훈련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31-154.

- 김태명, 이은주. (2017).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21-143.
- 김현지, 전경아. (201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73-299.
-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6, 71-97.
- 류정희. (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 문혁준, 최윤희.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부모의 훈육유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육아정책연구*. 14(2). 29-53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미정, 오두남. (2019).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52-462.
- 박봉주. (2018). 훈육 행동이나 지도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한 인식 :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천.
- 박성희, 김희화. (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박연주, 한창근. (2020). 훈육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사건 판례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회지*, 69, 29-55.
- 박영실. (2007). 청소년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기회 요인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와 권정혜. (2010).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25-44.
- 배미경, 김용미. (2016). 유아와 아버지의 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 323-346.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 보건복지부.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송정애. (2018). 원가족경험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31-54.
- 서은미.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신현정, 이은영. (2016). 아동상담가인 어머니가 체험한 양육에서의 ‘세대 간 전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2(4), 205-231.
- 심태은, 김은심. (2015).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훈육유형 비교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421-442.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안수영, 이명신. (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2(6), 63-79.
- 연현진, 한애경, 윤혜미. (2011). 남자범죄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학대피해경험과 사이코패스 성향의 관련성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8, 141-171.
- 오정옥, 이경원. (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2), 247-271.
- 오현미. (2016). 영유아 부모의 어린시절 훈육경험 및 훈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
- 유영숙, 하창순.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와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197-216.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문희, 이수림. (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중년 여성의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5), 417-438.
- 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55-75.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 비행에 있어 일반 긴장 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2), 85-105.
- 이숙희, 고인숙과 심정선. (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은영. (2016).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 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지영, 이정미, 이상희. (2020). 유아의 성별 및 형제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 또래관계 간의 관계분석. 아동교육, 29(2), 215-230.
- 이지혜. (2016).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율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이태원. (2005).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e) 의 경험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75-106.
- 이희길. (2008). 자기통제력의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이론(33), 165-202.
- 임홍수, 박송춘. (2016).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 교육연구, 5(1), 129-152.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수영. (2019).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 장영애, 김용미. (2010). 부모의 성 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 전영실. (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89-121.
- 정신자.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유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
- 정신혜. (2019). 한국판 부모지각 훈육행동척도(PPI-P)의 번안 및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정진희, 권오영, 김석준. (2018).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96-629.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옥자, 현온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중앙아동보호기관. (2021). <https://doi.org/https://www.ncrc.or.kr/ncrc/main.do>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 최선녀, 문영경. (2016).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97, 125-156.
- 최숙경. (2004).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 최옥채. (2019). 저출산 시기 다자녀 부모의 결혼과 출산 경험. 동광, 114, 54-90.
- 최윤희. 문혁준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관한 연구. 한습

- 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881-892
- 하영옥. (2018).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24(2), 178-184.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하창순. (2004).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지현, 이진숙. (2015). 어머니의 5 요인 성격특성과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5), 173-188.
-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 (2012).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SCS)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193-1210.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Baldwin, M. W., & Fergusson, P. (2001). Relational schemas: The activation of interpersonal knowledge structures in social anxiety.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 *Developmental psychology*, 4(1p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 Belsky, D. W., & Israel, S. (2014). Integrating genetics and social science: Genetic risk scores. *Biodemography and social biology*, 60(2), 137-15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 Belsky, J. (2005).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 Bigner, J. J. (1989). *Parent-child relations*. Collier Macmillan.
- Bodemann, Y. M., & Yurdakul, G. (2005). Geborgte Narrative: Wie sich türkische Einwanderer an den Juden in Deutschland orientieren. *Soziale Welt*, 441-451.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Bugental, D. B., Olster, D. H., & Martorell, G. A. (2003).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the dynamics of parenting.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25-48.
- Capaldi, D. M., Pears, K. C., Patterson, G. R., & Owen, L. D. . (2003).

- Continuity of parenting practices across generations in an at-risk sampl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27-142.
- Chaffin, M., Silovsky, J. F., Funderburk, B., Valle, L. A., Brestan, E. V., Balachova, T., Jackson, S., Lensgraf, J., & Bonner, B. L. (2004).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with physically abusive parents: efficacy for reducing future abuse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3), 500.
- Chen, Z. Y., & Kaplan, H. B. .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De Haan, A. D., Prinzie, P., & Deković, M. (2009). Mothers' and fathers' personality and parenting: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695.
- Dielman, T. E., Barton, K., & Cattell, R. B. (1977). Relationships among family attitudes and child rearing practic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0(1), 105-112.
- Feldman, S. S., Nash, S. C., & Aschenbrenner, B. G.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1628-1636.
- Forzano, L., & Logue, A. W. (1995). Self control and impulsiveness in children and adults: Effects of food preferences. *Journal of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64(1), 33-46.
- Greenlee JL, Piro-Gambetti B, Putney J, Papp LM, Hartley SL.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yles, and child outcomes in families of autistic children. *Fam Process*. 2022 Jun;61(2):941-961.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rland, S. T., & Grolnick, W. S. (2003). Children's expectancies and perceptions of adults: Effects on rapport. *Child development*, 74(4), 1212-1224.
- Hayes, A. F.,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18-1927.
- Hazzard, A., Christensen, A., & Margolin, G. (1983).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1), 49-59.

- Hébert, P. C., Wells, G., Blajchman, M. A., Marshall, J., Martin, C., Pagliarello, G., Tweeddale, M., Schweitzer, I., Yetisir, E., & Group, T. R. i. C. C. I. f. t. C. C. C. T. (1999).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transfusion requirements in critical ca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0(6), 409-417.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Hoffman, M. L., & Saltzstein, H. 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
- Hurlock, E. B. (1978).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Tata McGraw-Hill Education.
- Keller, P. S., Mark Cummings, E., & Davies, P. T. (2005). The role of marital discord and parenting in relations between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9), 943-951.
- Kendall, P. C., & Wilcox, L. E. (1980). Cognitive - behavioral treatment for impulsivity: Concrete versus conceptual training in non-self-controlled problem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1), 80.
- McGillicuddy-DeLisi, A. V. (1982). Parental 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Human development*, 25(3), 192-200.
- Moilanen, K. L., & Manuel, M. L. (2017). Parenting,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nd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9, 46-54.
- Nofziger, S., & Newton, K. (2017). Self-control, parental crime, and discipline across three generations. *Deviant Behavior*, 39(12), 1533-1551. <https://doi.org/10.1080/01639625.2017.1410616>
- Oaten, M., & Cheng, K. (2005). Academic examination stress impairs self-contro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254.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4.
- Palmer, C. D. (2009). *Parenting style and self-control skill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Pinderhughes, E. E. (2000). Discipline Responses: Influence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thnicity, Beliefs About Parenting, Stress, and Cognitive - Emotional Processes. *NIH Public Access*, 14(3), 380 - 400.
- Prinz, P., Stams, G. J. J., Deković, M., Reijntjes, A. H., & Belsky, J. (2009).

-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arent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51.
- Rodrigues, J., & Damle, S. (1997). Influence of maternal trait and dental anxiety on child behaviour. *J Indian Soc Pedod Prev Dent*, 15, 104-108.
- Rubin, K. H., Dwyer, K. M., Booth-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Krasnor,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 Sanders, M. R.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behavior and Parental Self-Control and Conflict 1007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 71 - 90.
- Smetana, J. G., & Daddis, C. . (2002). Domain 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Wellman, C., and Watson. (2001). Meta-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 Wheelan, M. L. S. S. A. (1980). *To Discipline Without Feeling Guilty: Asser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Champaign, Illinois: Research Press, .
- Wilson, S., & Durbin, C. E. (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67-180.
- Winch, R. F. (1972). Theorizing about the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 5-16.

## Abstract

# Factors affecting the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of parent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Kyeong-Ji Ha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Su-Mi Oh)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arents'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By using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parent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who visited one university hospital in Jeju Island for health check-up and vaccinations for about 7 months from January 31, 2022. The variables used were six variables(original family experience, self control,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child abuse awareness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and a 5-point Likert scale excluding child abuse awareness was used, and a 4-point Likert scale was used for child abuse awarene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8.0 program and PROCESS macro for SPSS (ver.4.1). Cronbach's alpha,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children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 $F=5.16$ ,  $p=.007$ )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2.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of par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riginal family experience, self-control,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buse awareness,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tress.
3.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factors affecting parents'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stage 1 ( $F=5.16$ ,  $p=.007$ ) and stage 2 ( $F=12.11$ ,  $p<.001$ ), 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the number of children surveyed was significant in the first stage. In the second stage, variables of self control ( $b=.13$ ,  $p=.018$ ), parenting stress ( $b=-.16$ ,  $p=.002$ ), and marital satisfaction ( $b=.09$ ,  $p=.037$ )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4. The regression model of parents'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self control ( $F=9.93$ ,  $p<.001$ ), and the regression model of parents'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child abuse awareness ( $F=6.28$ ,  $p<.001$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 It was verified that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were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ositive discipline behavior.

Therefore, i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for positive discipline behaviors of parents that can help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children, strategies are required to strengthen parents' self control and child abuse awareness.

# 부 록

JEJUNUH202201024-HE001

2013.12.23 개정본



## 통지서

※ 본 과제의 문서보존기간은 3 년입니다.						
소 신	의뢰(지원)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연구책임자	김영진 (y.j.kim@jeju.ac.kr)				
IRB File No.	JEJUNUH 2022-01-024	심사내용	연구심의신청서	통지일자	2022.02.03	
연구과제명	국문	부모의 훈육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임상시험코드			Study Nick Name			
연구분류1	<input type="checkbox"/> 약물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 제재 <input type="checkbox"/> 세포치료제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input type="checkbox"/> 의료기술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기      ( <input type="radio"/> 1등급 <input type="radio"/> 2등급 <input type="radio"/> 3등급 <input type="radio"/> 4등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연구분류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간대상연구 <input type="checkbox"/> 인체유래물(검체)연구 <input type="checkbox"/> 의무기록연구 <input type="checkbox"/> 유전자연구 <input type="checkbox"/> 유전자치료 <input type="checkbox"/> 배아연구 <input type="checkbox"/> 체세포복제배아연구 <input type="checkbox"/> 줄기세포주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radio"/> 전향적 연구 <input checked="" type="radio"/> 후향적 연구 <input type="radio"/> 전향적 & 후향적 병행연구				
연구분류 4		<input type="checkbox"/> 종재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자료분석 및 분석연구 <input type="checkbox"/> 관찰연구      ( <input type="checkbox"/> 단면조사연구 <input type="checkbox"/> 환자대조군연구 <input type="checkbox"/> 코호트 연구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Non-clinical study (in vitro, in vivo preclinical study)					
	일반명		상품명			
전체피험자총례수	전체	200 명	국내	200 명	본원	200 명
연구승인기간	2022.01.28 ~ 2023.01.31					
지원의뢰기관	기관명	제주대학교병원	대표(직위)	병원장	성명	송병철
제출서류목록						

유아기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방문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훈육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소요 예정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석사논문을 위한 통계자료로써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무기명인 자료로써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며 언제든지 중도에 포기하실 수 있고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작성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솔직한 생각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음은 여러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행동 및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5	4	3	2	1
2.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5	4	3	2	1
3. 나는 게으르다.	5	4	3	2	1
4. 집중하기가 어렵다.	5	4	3	2	1
5. 나는 재미있으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5	4	3	2	1
6.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5	4	3	2	1
7.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허느라 종종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한다.	5	4	3	2	1
8.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5	4	3	2	1
9. 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5	4	3	2	1
10. 나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만 가끔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5	4	3	2	1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3. 나는 남편/아내로서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4. 나는 자녀들의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씩 나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5	4	3	2	1
2.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5	4	3	2	1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5	4	3	2	1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다.	5	4	3	2	1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5	4	3	2	1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찡찡하다.	5	4	3	2	1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5	4	3	2	1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5	4	3	2	1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5	4	3	2	1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5	4	3	2	1
11.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	5	4	3	2	1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훈육유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보통	거의 안함	전혀 안함
1. 자녀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고맙다고 말하거나, 칭찬하거나 보상이나 특권을 주는 일	5	4	3	2	1
2.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는 일(예, TV금지, 간식 금지, 늦은 저녁까지 노는 것 금지)	5	4	3	2	1
3. 자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야기를 붙이거나, 기분이 회복되도록 위로하거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 노력하는 일	5	4	3	2	1
4. 자녀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자녀를 비난하는 일	5	4	3	2	1
5. 자녀가 이야기할 때 이를 잘 경청하거나 대화를 좋게 나누는 일	5	4	3	2	1
6. 자녀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	5	4	3	2	1
7. 자녀가 문제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거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일	5	4	3	2	1
8. 자녀의 엉덩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일	5	4	3	2	1
9. 자녀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놀아주는 일,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일	5	4	3	2	1
10. 자녀에게 화가 나서 아단치고, 고함치고, 소리치는 일	5	4	3	2	1
11.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착하다고 말하는 일	5	4	3	2	1
12. 자녀에게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고 위협하거나 경고하는 일	5	4	3	2	1
13. 자녀에게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가능한 일을 허락하거나,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도록 하는 일	5	4	3	2	1
14. 자녀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자기 방이나 구석진 곳에서 있도록 하는 일	5	4	3	2	1
15. 자녀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예, 매우 어려운 일, 자녀에게 불가능한 어떤 것) 도와주는 일	5	4	3	2	1
16. 자녀에게 뭘 하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일	5	4	3	2	1
17. 자녀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간지럼을 태우거나 미소 지어 보여주는 일	5	4	3	2	1
18. 자녀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일	5	4	3	2	1
19. 자녀에게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할 때,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는 일	5	4	3	2	1
20. 자녀에게 지나친 벌을 주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주는 일	5	4	3	2	1

※ 다음은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판단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학대이다	대체로 학대인 것 같다	학대가 아닌 것 같다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맨 손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4	3	2	1
2.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4	3	2	1
3.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	4	3	2	1
4.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	4	3	2	1
5.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4	3	2	1
6. 아이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르는 행위	4	3	2	1
7.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하는 행위	4	3	2	1
8.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4	3	2	1
9.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4	3	2	1
1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거나 만지는 행위	4	3	2	1
11.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4	3	2	1
12.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하는 행위	4	3	2	1
13.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4	3	2	1
14.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4	3	2	1
15.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행위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어린시절 부모님과의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5	4	3	2	1
2.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았다.	5	4	3	2	1
3.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5	4	3	2	1
4.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5	4	3	2	1
5.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에게 때문에 속상해 했다.	5	4	3	2	1
6.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5	4	3	2	1
7.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5	4	3	2	1
8.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5	4	3	2	1
9.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5	4	3	2	1
10. 나는 부모님에게 정을 느끼지 못했다.	5	4	3	2	1
11.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했다.	5	4	3	2	1
12. 나는 부모님과 다투는 것보다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5	4	3	2	1
13.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5	4	3	2	1
14.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5	4	3	2	1
15. 우리 부모님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한 편이다.	5	4	3	2	1
16. 부모님끼리 싸우면 내게 분풀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5	4	3	2	1
17. 불합리한 일도 부모님은 강제로 시키는 일이 많았다.	5	4	3	2	1
18.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5	4	3	2	1
19. 내가 자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였다.	5	4	3	2	1
20.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다.	5	4	3	2	1
21.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했다.	5	4	3	2	1
22.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다투더라도 가족 간에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2. 귀하는 한국 나이로 올해 몇 세이십니까?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3. 귀하의 자녀 중 남자 아이는 몇 명입니까?

없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4. 귀하의 자녀 중 여자 아이는 몇 명입니까?

없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5. 같이 내원한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6. 같이 내원한 자녀는 현재 몇 개월입니까? (만약, 23개월과 24개월 사이라면 23개월에 표시해주세요)

12~23개월(만 1세)  
 24~35개월(만 2세)  
 36~47개월(만 3세)  
 48~59개월(만 4세)  
 60~71개월(만 5세)

7. 같이 내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재부탁드립니다.

예 (질환명: \_\_\_\_\_ )  
 아니요

8. 같이 내원한 자녀 이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재부탁드립니다.

예 (질환명: \_\_\_\_\_ )  
 아니요

9.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10. 자녀(들)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이라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어머니
- 아버지
- 할머니와(또는) 할아버지
- 그 외 친척
- 가족 외 사람(베이비 시터 등)

**1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12. 귀하의 직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학생  가사  무직  군인  기타 (                    )

**13.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십니까?**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